

■ 중국에서의 한국학과 한국어교육

## 국속의미론(國俗意味論) 연구와 한국어교육\*

강은국\*\*

— < 次 例 > —

1. 서론
2.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
3. 국속의미에 대한 일반적 이해
4.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
5. 결 론

### 1.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범세계적 범위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서 한국어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약하는 제 요인들을 찾아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 역사와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현 주소를 찾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른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 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

\* 본 연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제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2007. 10. 27)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임.

\*\*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어학과.

논의하고자 한다.

## 2.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어 교육은 그 교육목표의 설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첫째, 언어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교육, 둘째, 교제의 능력(또는 의사소통의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교육, 셋째, 교류의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교육 등 세 개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sup>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도 다른 언어에서의 외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현대 언어학의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발전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편견 없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다른 언어에서의 외국어 교육의 발전과는 아직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교제의 능력’의 신장, 또는 ‘의사소통의 능력’의 신장을 전체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언어에서의 외국어 교육과 비교할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주된 문제는 무엇이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1) 필자가 말하는 ‘교류의 능력’을 중국의 학자들은 ‘交往能力’이라 칭하면서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언어능력’도, ‘교제능력’도 아닌 바로 이 ‘交往能力’라고 했다.(王振亞: “以跨文化交際爲目的的外語教學” [吳友富 『國俗語義研究』,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8:354 참고])

언어 교육은 언어학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언어학의 발전에 따라 부단히 발전하게 됨은 모두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리하여 언어교육의 역사는 언어학 연구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문헌 해독을 중심으로 하는 언어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초기의 외국어 교육은 두 말 할 것 없이 전통언어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언어능력에 화용능력을 가미한 교제능력(혹은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은 사회언어학, 화용론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교제의 능력에 사회문화능력을 가미한 교류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은 사회학, 문화언어학 등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보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회문화 능력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요한 원인은 문화언어학 등의 연구 성과가 언어교육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사회문화 능력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도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한국의 경제, 정치, 역사, 지리, 문학, 예술, 풍속, 습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한국 개략', '한국문화', '한국에 대한 이해' 등 학과목을 설정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문화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떤 교재에서는 문화의 내용에 따라 단원을 편성하여 언어교육과 함께 문화교육을 진행하려는 등의 시도들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어교육에 있어서도 '문화교육'이 상당한 정도에서 중시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 한국어교육에서는 '문화교육'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교제의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한 외국어 교육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하고 있던 ‘문화교육’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인류학자 Edward Tylor가 ‘원시문화’(1871)란 저서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습관 및 사회성원으로서의 사람이 획득한 기타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잡한 정체”를 문화라 한다는 정의를 경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Tylor 이후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문화에 대해 수많은 정의를 내린바 있지만 대부분 Tylor의 정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출판된 ‘소련백과전서’(1980)에서도 ‘문화’를 협의와 광의의 두 측면으로 갈라 “협의적 의미에서의 문화는 사람들의 정신 생활을 가리키고”, “광의적 의미에서의 문화는 자연계와 구별되는 사람들이 창조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화’를 다른 학문 혹은 학과와 구별하는 정의로서는 매우 경전적인 정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문화’가 언어교육에서 논의될 때는 그 사정이 다르다. 그것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언어는 문화를 기록하고 문화를 반영하며 문화를 표현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도구이다. 한 민족의 역사, 지리, 풍속, 습관 등 문화는 바로 이 언어로 해서 기록되고 보존되며 또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활용한 ‘한국 개략’, ‘한국문화’, ‘한국에 대한 이해’ 등 학과목의 설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에 머문다면 전면적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문화는 사회 실천과 사회 역사의 산물로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언어에 의해 기록, 보존, 표현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생성, 변화,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언어의 변화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민족의 언어도 특정 지역의 인문 역사 환경 속에서

형성 발전되기에 언어 구조 속에도 그 민족의 문화 요소가 내포되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 ‘九五之尊’이란 말이 있는데 이 언어적 단위는 ‘황제’의 의미 구조를 갖고 쓰이는데 순 언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사가 九와 五가 모든 언어에서 ‘황제’를 뜻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이 언어적 단위가 ‘황제’를 뜻하게 되는 것은 수사 九와 五에 문화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땅은 네모지고 그 색상은 황색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오행설에 의하면 숫자 1, 2, 3, 4는 북, 남, 서, 동 즉 오늘날의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五는 그 차례로는 다섯 번째이나 방위로는 中央을 가리키며 색상으로는 黃에 속하는 숫자로 된다. 九도 五와 마찬가지로 그 방위에서는 中央, 색상에서는 黃에 속하는 숫자이다. 이리하여 땅의 가장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九와 五로 황제를 상징하기에 이른 것이다. 역경에는 “九五, 飛龍在天, 利見大人”이란 말이 있는데 그 뜻은 9와 5가 겹치면 龍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이때 위인이 꼭 출현된다는 것이다. 후세에는 ‘九五之尊’을 ‘황제’의 대칭으로 사용했다. 한국어 ‘함흥차사’란 언어적 단위 역시 여기에 한민족의 역사 문화 요소가 담겨지면서 ‘한 번 가면 깜깜 무소식’이라는 새로운 의미 구조가 생성되게 된 것이다. 현대 언어학에서는 이렇게 한 민족어의 개념의미에 더 첨가된 그 민족만이 갖고 있는 문화 상징적 의미를 ‘국속의미’라 한다.<sup>2)</sup> 이런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는 언어교육, 특히는 외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외국어 교육의 중국적 목적이 서로 다른 문

2) ① ‘국속의미’는 중국의 언어학자 王德春교수가 “論詞典的類型”(『辭書研究』, 1980:1)에서 ‘국속사전’ 문제를 논의할 때 처음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그 후 왕교수가 “國俗語義和漢語國俗詞典”(『中國文化與世界』, 1992)에서 ‘국속의미론’을 언어학의 새로운 분과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기하면서 지금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더불어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② 필자는 『중국조선어문』 2002:2에서 ‘민족문화의미’란 용어로 ‘국속의미’에 대해 토론한 바 있다.

화권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이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발음, 문법, 어휘 등 언어 지식을 습득해야 함은 물론 언어의 개념 의미에 더 첨가된 국속의미를 습득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한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을 어느 정도 습득하면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문화나 사상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해당 민족어에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는 문화 상징적 의미, 즉 국속의미를 어느 정도 습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九五之尊’이란 표현을 일반 한국인들은 그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까치 뱃바닥 같다’라는 속담의 뜻을 중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 점을 잘 입증해 준다.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해는 중국어나 한국어의 이런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국속의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외국어 능력의 향상에서는 해당 언어의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문화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언어에 의해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파되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의 발전, 특히는 의미의 변화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에서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해당 민족의 문화에 대한 교육에 중시를 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언어 내부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국속의미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 3. 국속의미에 대한 일반적 이해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우리는 언어 내부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

요소에 의해 실현되는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 문제가 교류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시급히 풀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을 확인했다. 이리하여 여기서는 언어학의 새로운 연구과제로 되고 있는 국속의미에 대해 좀더 논의하고자 한다.

국속의미란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민족 문화의 산물로서 한 언어의 개념 의미에 추가된 문화 상징적 의미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한 민족어의 의미(단어 또는 문장의 의미)체계 속에는 어떤 객체(사실)를 표현하는 개념 의미 외에도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 풍속 습관, 민족 정서, 지리 환경 등을 표현하는 다양한 문화 상징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가 국속의미이다. 따라서 “국속의미는 의미의 민족성의 일종 표현으로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집단의 역사 문화와 풍속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민족 문화 특색을 띠게 된다.”<sup>3)</sup> 이리하여 한 민족의 역사 문화 배경을 떠나서는 한 언어의 참된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은 한국어의 ‘흰소리 잘하는 사람’을 조롱조로 이르는 ‘까치 뱃바닥 같다.’라는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중국어에서는 ‘까치’가 ‘희작(喜鵲)’으로 불리면서 ‘길상, 환락, 희사, 길운’ 등 긍정적 의미로만 쓰이기 때문이다.<sup>4)</sup>

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낙안(落雁)’을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려앉는 기러기’로만 이해하고 있는데<sup>5)</sup> 중국어에서의 ‘落雁’은 “有沉魚落雁之容(유침어낙안지용), 閉月羞花之貌”(폐월수화지모)[宋·古杭才人 『宦門子弟錯立身』]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미모를 상징하는 말로서 ‘미녀’란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는 말이다.<sup>6)</sup>

3) 吳友富 주편 『國俗語義研究』(1998:1) 참고

4) 강은국, 한중 민족문화의미 비교연구(『우리 민족어의 연구와 전파』 406) 참고

5) 『동아 새 국어사전』(2001)의 주석 참고

6) 王德信, ‘언어학의 새로운 분과 - 국속의미론 약론’, 『國俗語義研究』, 1998:11) 참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중 두 언어에서 서로 대응되는 언어적 단위가 서로 다른 국속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아래 부동한 민족어에서 서로 대응되는 언어적 단위에서 나타나는 이런 국속의미의 차이를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가 각자 자체의 국속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용(龍)’은 중국어에서는 ‘眞龍天子(진용천자)’에서와 같이 황제를 상징하기도 하고, “諸葛孔明者, 臥龍也(제갈공명자, 외룡야)”(삼국지. 제갈량전)에서와 같이 재화(才華)가 뛰어난 사람을 비유하기도 하며, ‘권위, 힘, 재능, 길상’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지만 영어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악마, 흉악한 여인’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sup>7)</sup>

그런데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주로는 동서양 문화의 경우에서와 같이 문화적 차이가 비교적 심한 언어 사이에서 표현된다.

둘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의 향이 대부분이 서로 다르고 극히 적은 일부만 같거나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한국어의 ‘꿈’과 중국어의 ‘熊’을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 ‘꿈’은 우선 ‘한민족의 선조’란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 꿈이 변하여 여자로 된 용녀가 환웅과 혼인하여 한민족의 시조 단군을 낳았다는 단군신화에서 우리는 ‘꿈’이 갖고 있는 이런 국속의미를 알 수 있다.

7) 王德春, 王建華: “論雙語國俗語義的差異模式”(『國俗語義研究』, 1998:57) 참고.



다음 ‘꿈’은 ‘여성’의 상징으로도 된다. 위에서 본 단군신화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속, 민속, 풍습, 문학작품 등에서도 ‘꿈’은 ‘여성’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꿈나루전설’에 등장하는 나무꾼을 유혹한 ‘꿈’이 변신한 미녀, 황순원의 소설 ‘별과 같이 살다’에 등장하는 주인공 ‘꿈녀’ 등등에서 ‘꿈’은 ‘여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 그 다음 ‘꿈’은 ‘인내력’의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다. 단군신화에서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던 호랑이와 ‘꿈’ 중에서 호랑이는 인내력이 없어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꿈’은 참을성 있게 금기하여 삼칠일 만에 끝내 여인으로 변한다. 이상은 ‘꿈’이 갖고 있는 긍정적 국속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꿈’은 긍정적 국속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도 갖고 있다. 한국어에 ‘꿈 창날 받듯’이란 속담이 있는데 우둔해서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꿈’은 ‘우둔함’의 국속의미도 갖고 있는바 일상생활에서도 “꿈 같이 우둔하다.”란 표현을 흔히 쓴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熊’은 어떤 국속의미를 갖고 쓰일까? 중국어에서 ‘熊’은 ‘우둔함’의 국속의미만을 갖고 있다. 중국어의 ‘熊包’, 또는 ‘熊包蛋’은 우둔하고 무능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你真熊.”이란 말은 “너 참 우둔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꿈’이 갖고 있는 국속의미는 ‘우둔함’이란 의미의 항에서만 갖게 쓰일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한국과 중국이 비록 지리적으로는 서로 인접된 동양문화권에 속하지만 필경은 민족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셋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가 대부분 동일한 경우.

이 경우는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의 국속의미의 항의 대부분이 같거나 비슷하게 쓰이고 극히 적은 일부분이 다르게 쓰이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한중 두 언어의 ‘제비’를 그 대표적인 실례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길조(吉兆)’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의 『시경』에는 “天命玄鳥(천명현조), 降而生商(강이생상)”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玄鳥(현조)’는 ‘제비’의 별칭이다. 이 말은 상(商)의 어머니가 제비 알을 먹고 상(商)을 낳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다. 한민족도 제비가 3월 3일에 왔다가 9월 9일에 강남으로 가는 새이므로, 즉 두 양수(陽數)가 겹치는 날에 왔다 가는 새이므로 제비가 날아들어 등지를 트는 것을 길조(吉兆)로 여긴다.

‘제비’는 ‘부부지정’의 국속의미도 갖고 있다. 중국 전통혼례에서는 ‘并蒂蓮開蓮蒂并(병체련개련체병), 雙飛燕侶燕飛雙(쌍비연려연비쌍)’이란 주문을 써 붙이는데 여기에 쓰인 ‘并蒂蓮’과 ‘雙飛燕’은 화목한 부부를 비유한다. 한국어에서도 ‘제비’는 ‘까치, 나비, 원앙’ 등과 함께 “제비 쌍쌍, 나비 쌍쌍, 비취원앙이 다 쌍쌍이로되”라는 시구에서와 같이 ‘부부지정’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봄’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 한중 두 언어에서 ‘제비’를 ‘춘연(春燕)’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그것은 제비가 춘삼월만 되면 어김없이 강남에서 날아오기 때문이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한가함’의 국속의미도 갖고 있다. ‘燕居(연거)’(한가히 지냄), ‘燕安(연안)’(몸과 마음이 한가롭고 편안함), ‘燕寢(연침)’(한가히 거쳐하는 방) 등은 한중 두 언어에서 다 같이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 ‘제비(燕)’는 ‘한가함’의 상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옹졸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기도 한다. 한중 두 언어에는 ‘燕雀(연작)’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도량이 좁은 사람, 즉 옹졸한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제비’는 한중 두 언어에서 이와 같은 서로 비슷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기도 한다.

우선 중국어에서는 ‘제비’가 한국어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진사급제’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기도 한다. 중국어에는 ‘杏林春燕(행림춘연)’이란 말

이 있는데 이 말은 ‘진사급제’란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 유래는 이러하다. 명청(明清)시기, 매년 2월이면 진사 시험을 보았는데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황제가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황제가 베풀어 주는 ‘연회’의 ‘宴’이 제비 ‘燕’과 그 음이 같으므로 황제가 행원(杏園)에서 진사 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연회를 ‘杏林春燕’이라고 했다.

다음 한국어에서는 ‘제비’가 중국어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보은’의 국속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비’의 ‘보은’은 『홍부전』에서 잘 나타난다. ‘제비’는 이외에도 ‘비의 전조’(제비가 사람을 알르면 비가 온다), ‘풍년’ 등의 국속 의미도 갖고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제비’가 갖고 있는 국속의미는 한중 두 언어에서 공통점이 많고 차이가 적은데 이와 같은 사정은 한중 두 민족의 문화가 빈번한 교류에 의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넷째, 서로 대응되는 두 언어적 단위에서 어느 한 언어적 단위는 국속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 언어적 단위는 국속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sup>8)</sup>

국속의미는 지금까지의 고찰에서와 같이 부동한 민족의 언어교류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차이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공통점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국속의미가 서로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공성

8) 王德春, 王建華: “論雙語國俗語義的差異模式”(『國俗語義研究』, 1998:55)에서는 이런 유형의 실례로 중국어와 영어의 ‘타조’와 ‘학’을 들면서 ‘타조’는 영어에서 ‘우둔함’, ‘식욕이 큼’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아무런 국속의미도 갖고 있지 않으며, ‘학’은 중국어에서는 ‘장수, 황태자, 출중한 인물, 중무소식’ 등의 다양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아무런 국속의미를 갖지 않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 개성이 병존하게 되는 주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귀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속의미는 일반적으로 객체 의미의 연상,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의 연상에 의해 산생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은 언어가 다르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여우’라 하면 한국인, 중국인, 영국인, 러시아인 모두가 ‘교활’이란 공통된 연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이 동물 자체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 자체의 속성에 대한 연상으로부터 산생되는 국속의미는 부동한 언어에서 일정한 공성을 갖게 된다. 둘째, 국속의미는 또 습관적인 연상에 의해서도 산생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민족 습관을 가리킨다. 따라서 습관적인 연상에 의해 산생되는 국속의미는 꼭 같을 수 없다. 예컨대 중국 사람들은 ‘곰’이란 단어만 떠올리면 습관적으로 ‘우둔함’을 연상하게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시조’, ‘여성’ 등을 연상하게 된다. 셋째, 일부 국속의미는 언어적 단위의 어음구조(또는 말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연상으로부터 생성되기도 한다. 예컨대,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배(梨)’나 ‘시계(鐘)’는 선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어의 ‘梨’는 ‘이별’의 ‘離’와 음이 유사하고 ‘鐘’은 ‘임종(臨終)’의 ‘終’과 음이 비슷하기에 시계를 선물한다는 것은 ‘送終’ 즉 ‘임종을 지킨다.’는 뜻으로 되기 때문이다. 또 한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숫자 ‘4’를 꺼리는데 그 원인은 ‘4’의 음이 죽을 ‘死’와 음이 유사하다는 데로부터 죽음을 연상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속의미는 한 민족의 역사 문화, 종교 신앙 등의 연상으로부터 산생되기도 하는데 이런 국속의미는 민족 문화의 차이와 심리적 연상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런데 이 국속의미는 동일한 민족어 내부에서도 사회적, 지역적 차이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국속의미가 특정된 지역의 인문 역사 환경 속에서 형성 발전되는 것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는 ‘老九’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홍콩, 대만 등 지역에서는 문자 그대로 형제 등을 칭하는 말에서의 ‘아홉째’란 뜻으로만 쓰이지만 중국 대륙에서는 문화대혁명시기에 ‘자산계급 지식분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 ‘지식분자’가 역사적으로 아홉 번째의 자리를 차지했었다는 사실이다. 중국 역사를 보면 일찍 원대(元代)에 사회 각 계층을 10등급으로 나누었는데 그 순위는 ‘一官, 二吏, 三僧, 四道, 五醫, 六工, 七獵, 八民, 九儒, 十丐’로 되어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식분자’는 ‘九儒’, 즉 아홉 번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속의미는 해당 민족의 역사 문화의 침전물로서 한 민족의 언어적 단위가 장기간의 박복적인 사용과정에서 그 언어적 단위의 개념의미에 문화 상징적 의미가 부착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국속의미는 언어행위의 제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화용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화용론의 핵심 개념으로 되고 있는 화행의미와 유사한 특성을 띠게 된다.

그럼 아래 다 같이 언어행위의 제 과정에서 산생되는 국속의미와 화행의미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용론은 언어행위의 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전달되는 기호의 내용을 매개로 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이다. 바꾸어 말하면 언어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간의 일치를 전제로 한 제반 조건의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학의 한 분과이다.<sup>9)</sup> 그리고 이 언어행위의 과정에서 표현되는 의미를 화행의미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행위 쌍방에 의해 진행되는 교제는 다음과 같은

9) 王德森, 許宜華, 『大辭海 語音學卷』, 2003:141 참고.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언어행위에서 의사소통의 중심을 이루는 의미, 즉 화행의미는 약정 속성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언어행위의 쌍방이 모두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민족들 간에는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되지만 서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동일한 민족들 사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행위의 쌍방이格外的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 남편이 부인에게 “지금 몇 시야?”하고 물었을 때 부인은 “조금 전 신문배달부가 왔다갔어요”라고 대답한다. 이 대화에서 부인은 남편의 물음에 몇 시라고 답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현재시각’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부인과 남편은 신문배달부가 매일 몇 시쯤에 신문배달을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재시각’은 格外的 의미로 된다. 셋째, 동일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행위 쌍방도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 교제가 가능하게 된다. 그것은 화행의미가 단어의 개념의미의 단순한 총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람과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 사람이 서로 교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칠칠’ 혹은 ‘일곱이레’라는 말이 나왔다 할 때,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이해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따라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한국문화에서는 ‘칠칠’ 혹은 ‘일곱이레’가 ‘태어난 지 일곱 번째 되는 이레의 끝날, 즉 태어난 지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지만, 중국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 제례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매 7일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이 49일까지 계속 된다. 그러니 이런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그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화용론에서 논의되는 화행의미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화행의미와 국속의미는 공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꼭 같다는 말은 아니다. 화행의미와 국속의미가 다 같이 문화와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기 위해 화행의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 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가 온다.”, “나는 신문을 본다.” 등에서 표현되는 화행의미는 단어의미의 총화와 동일하다. 그러나 모든 화행의미가 반드시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예로 든 남편과 부인의 대화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남편: 지금 몇 시야?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 대등함)

부인: 조금 전에 신문배달부가 왔다갔어요. (화행의미가 단어의미의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에 의해 ‘현재시각’이 표현됨)

위의 예에서 우리는 화행의미는 발화 상황에 나타난 단어들의 의미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단어들의 의미 총화와는 별개인 言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화행의미는 또 “까치 뱃바닥 같다.”, “有沉魚落雁之容(유침어낙안지용)”에서와 같이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성구, 속담, 속어 등의 의미는 대부분 단어의미의 총화로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화행의미는 발화 상화에서의 단어의 개념의미의 총화로 표현될 수도 있고 言外의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속의미는 오로지 문화적 특성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로서 모든 국속의미가 화행의미라는 보다 큰 범주로 묶일 수는 있지만 모든 화행의미가 국속의미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행의미

중에서 민족 문화 특색에 의해 제약되는 의미만 국속의미로 될 따름이다.

#### 4.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교류능력의 신장을 총 목표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나서고 있는 국속의미 연구의 필요성 또는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국속의미론 연구의 성과를 어떻게 한국어교육에 도입하겠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과는 좀 달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번역(통역)을 더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토론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한편으로 하고 번역(통역)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물론 번역도 포함됨)는 이해를 전제로 또는 기초로 해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토론의 중점을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와 번역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에 두고자 한다.

##### 1)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

이해능력이란 말을 듣는 사람이 청각기관을 통해 접수한 어음연속체를 의미적 단위로 해석 전환시키는 과정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말을 듣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해당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을 갖추어야



말을 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정보)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당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한국어에 관한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 없이는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명문대학이다.”란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음,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란 속담을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국인 대학원생들이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까치 뱃바닥 같다”란 속담을 적지 않은 한국인 대학원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sup>10)</sup> 여기서 우리는 이해능력은 단순히 어음, 어휘, 문법 등 언어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지식에 의해서도 가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용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언어교제에서 말을 듣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보내온 언어정보에 따라 자신의 기억 중에서 이 방향의 지식과 경험을 찾아내고 이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접수된 언어정보를 예측, 추리, 판단 등의 과정을 거쳐 이해의 목적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을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방향의 지식 정도가 이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건으로 된다. 그런데 이런 지식과 경험은 말을 듣는 사람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교류 쌍방의 공동으로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어야 한다.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일정한 듣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 하는 사람의 이야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인데 이런 이해의 어려움은 주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된다. 그러므로 이해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언어의 의미구조에 직접 반영된 문화적 의미, 즉

10) 필자의 강의를 듣는 7명의 한국인 대학원생과 3명의 중국인 대학원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국인 대학원생 전원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란 속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까치 뱃바닥 같다”란 속담은 단 한명의 한국인 대학원생이 이해하고 있는 사정이었다.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인 과업의 하나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의 연구는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 국속의미는 여러 가지 부동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바 먼저 한 민족어에서 일정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를 선정하고 이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가 갖고 있는 국속의미를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먼저 특정된 국속의미를 확정해놓고 이런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일련의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를 발굴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종적분석’ 방법이라 하고 두 번째 방법을 ‘횡적분석’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1)</sup>

만약 국속의미의 연구 방법을 ‘종적분석’과 ‘횡적분석’ 두 가지 방법으로 개괄할 수 있다고 할 때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 연구에서는 ‘종적분석’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동한 문화현상이 흔히 동일한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부동한 국속의미를 갖게 하는데 이런 국속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장악했는가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체비’가 중국어에서는 ‘길조(吉兆), 부부지정, 봄, 한가함, 웅졸한 사람, 진사급제’ 등 다양한 국속의미를 갖고 쓰이며 한국어에서는 ‘길조(吉兆), 부부지정, 봄, 한가함, 웅졸한 사람, 보은, 비의 전조’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쓰인다는 데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이렇게 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하나의 단어도 상당히 다양한 국속의미를 갖고 다의어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할 경우가 상당하리라 생각된다. 중국 학생들이 ‘까치 뱃바다 같다’란 속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한국어에서 ‘까치’가 갖고 있는 국속

11) 王德春: 『國俗語義縱橫談』(『國俗語義研究』, 1998:42-53) 참고.

의미의 전부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까치’가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길상’, ‘환락’, ‘희사’, ‘길운’ 등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지만 ‘흰소리’, ‘허풍쟁이’, ‘죽음’ 등의 국속의미를 더 갖고 있다는 사정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가 갖고 있는 모든 국속의미를 하나하나 발굴해내는 종적분석은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 2) 번역(통역)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

지금까지 우리는 국속의미 연구에서 종적분석은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데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서도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이해능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초로 될 뿐만 아니라 번역(통역)의 기초로도 된다. 그것은 ‘번역’이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나라 말로 바꿔 옮기는 것”<sup>12)</sup> 또는 “한 언어 문자의 의미를 다른 한 언어 문자로 표현하는 것”<sup>13)</sup> 등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한 언어 문자의 의미’ 또는 ‘한 나라의 말로 된 글의 내용’을 다른 언어 문자 또는 다른 나라의 말로 바꿔 표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의미’ 또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의 중점으로 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에는 국속의미도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번역능력의 신장을 위한 국속의미론 연구에서도 종적분석이 중요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번역(또는 통역)이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

12) 『동아새국어사전』 2001년 참고

13) 『現代漢語詞典』 2005년 참고

는 것만은 사실이나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 모든 번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번역이란 단순히 ‘원문’의 뜻(의미)을 그대로 ‘역문’에 옮겨놓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번역 이론가 Peter Newmark는 ‘의미의 번역’(1988:22)이란 글에서 번역은 교제 번역과 의미 번역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역문 독자로 하여금 원문 독자와 같은 효과를 보게 하는 데 치중하고 후자는 원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모두 번역해내는 데 치중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문체에 따라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달리 설정되는데 역문 독자로 하여금 원문 독자와 같은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제 번역의 경우에는 의미 번역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원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으로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 학계에서 가역성과 불가역성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불가역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사상 감정은 부동한 언어 및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호간의 사상 감정의 교류는 불가능하며 그 번역도 국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근사성’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근사성’은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번역이 다문화간의 사상 감정의 교류까지를 목적으로 할 때 교제 번역은 국부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근사성’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교제 번역에서의 이 ‘근사성’, 즉 불가역성의 주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역문의 언어가 처한 문화 전통 가운데 원문의 언어에 숨겨진 역사 문화, 풍속 습관, 감정 정서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 요소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 감정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 교제 번역에서 ‘근사성’에라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원문의 언어에 숨겨진 이런 역사 문화, 풍속 습관, 감정 정서 등을 나타내는 언어적 요소들과 근사한 표현들을 찾아내는 것이 주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예를 들어, “범 모르는 하룻강아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속담을 “初生狗不怕虎(초생구불과호)”라고 번역한다면 중국 사람들은 절대 원문 독자와 같거나 근사한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 문화에서는 “初生牛犢不怕虎(초생우독불과호)”에서와 같이 ‘강아지’가 아닌 ‘송아지’가 ‘멋모르고 겁 없이 덤빔’을 비유하여 이르는 동물로 등장되기 때문이다. 또 예를 들어 중국어의 “令公桃李滿天下，何用堂前更種花”<sup>14)</sup>에서의 ‘桃李’를 한국어로 옮길 때 ‘복숭아와 자두’로 번역해서는 원문의 뜻과 어긋나는 번역으로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여 그 뜻을 살려 ‘문하생’ 또는 ‘문인’으로 번역해서도 안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첫째 구의 ‘桃李’를 ‘문하생’으로 번역하면 둘째 구의 ‘꽃을 심다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도리’로 번역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문 독자와 꼭 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교제 번역에서는 원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원문의 표현과 꼭 같거나 거의 근사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그러나 실제 번역에서는 원문의 표현과 꼭 같은 표현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원문의 표현과 거의 근사한 표현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위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은 국속의미의 전환이다. 즉 역문에서 어떻게 원문의 언어에서 표현된 국속의미를 가장 근사한 국속의미로 전환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간 국속의미의 상호 전환을 위해서는 한 민족어에서 동일한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선별하여 ‘동의어군’을 구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연구 방법이 바로 앞에서 지적한 ‘횡적분석’ 방법이다.

횡적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문화현상이 흔히 부동한 단어 또는 언어적 단위로 하여금 동일한 국속의미를 갖게 한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장

14) 白居易: “春和令公綠野堂種花” 참고

수'란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의 계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모든 인간은 장수하기를 희망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리하여 그 어떤 민족어에서든지 '장수'의 국속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표현이 아주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왕덕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장수'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는 '남산(南山), 소나무(松), 참죽나무(椿), 복숭아(桃), 국화(菊), 산수유(茱萸), 계수나무(桂), 수목(壽木), 명령(冥靈), 학(鶴), 거북(龜), 태배(鮐背), 방미(龐眉), 팽조(彭祖), 송교(松喬)' 등이 있다.<sup>15)</sup>

'南山(남산)'은 "如南山之壽"(詩經·小雅·天保)에서와 같이 장수를 비유하는 사물의 하나로 쓰이었다. 민간에서는 지금도 "福如東海, 壽比南山"이란 대구로 춘련(春聯)을 써서 붙이고 있다.

'松(송)', 즉 '소나무'는 "壽比南山不老松"에서와 같이 '남산'과 함께 '장수'를 상징하고 있다. '소나무'는 또 "松鶴延年"에서와 같이 '학'과 합쳐 쓰이면서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今朝祝壽, 祝壽數, 比松椿"(宋·晏殊(안주)의 "拂霓裳(불예상)"에서와 같이 참죽나무 '椿'과 합쳐 '장수'의 국속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椿(춘)', 즉 참죽나무는 중국어에서 '나이'를 뜻하는 말과 함께 '椿年, 椿齡, 椿歲' 등과 같이 쓰이면서 장수를 축하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장자(莊子)의 "逍遙游"에도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八千歲爲秋"이란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인 '大椿者'는 장수한 사람을 뜻한다.

'桃(도)', 즉 복숭아는 "玉桃服之長生不死"(神農經)에서와 같이 예로부터 '장생불사의 약'으로 불려오고 있다. 중국의 고전명작 "서유기"에도 손오공이 '장생불사의 천도복숭아'를 훔쳐 먹는 장면이 나온다.

'菊(국)', 즉 국화는 지금은 민간에서 '長壽花'로 불리고 있고 고대에는

15) 王德春: "國俗語義縱橫談"(『國俗語義研究』, 1998:42-48) 참고.

‘壽客’으로 불리었다. 송나라 姚寬의 “西溪叢語”에 “牡丹爲貴客, 梅爲清客…菊爲壽客”이란 기록이 나온다.

‘茱萸(수유)’, 즉 산수유 역시 국화와 마찬가지로 ‘장수’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9월 9일 중양절에 산수유를 머리에 꽂거나 달고 국화주를 마시면 악귀를 물리치고 장수한다는 풍속이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산수유 열매는 약효가 뛰어나 수유주(茱萸酒)의 주요 원료로 쓰이는바 당나라 閻朝隱(염조은)의 시구에도 “愿因茱萸酒, 相守百千年” 기록이 나온다.

‘桂(계)’, 즉 계수나무는 참죽나무 ‘椿’과 함께 쓰이어 ‘장수’의 국속의미를 나타낸다. 蜀나라의 杜光庭의 시구에는 “儲皇享椿桂之年, 常扶大業”에서 ‘椿桂’이 바로 ‘장수’를 뜻하는 말이다.

‘壽木(수목)’은 불사수(不死樹)라고도 한다. ‘여씨춘추. 本味’에는 “菜之美者, 昆侖之華, 壽木之華”란 기록이 있는데 그 뜻인즉 “수목은 곤륜산에서 나는 나무인데 그 열매를 먹은 자는 죽지 않는 고로 수목이라 했다”는 것이다.

‘冥靈(명령)’이란 신화 전설에 나오는 나무인데 참죽나무와 함께 쓰이면서 ‘장수’의 의미를 나타낸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장자 “逍遙游”에 “楚之南有冥靈者, 以五百歲爲春, 五百歲爲秋”란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冥靈者’는 “장수한 사람”을 가리킨다.

‘鶴(학)’은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수’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淮南子 說林訓’에 “鶴壽千歲”란 말이 나오며 지금도 ‘鶴壽’, ‘鶴仙’이란 단어가 많이 쓰이니 ‘학’의 ‘장수’의 의미는 더 말할 것도 없다.

龜(귀), 즉 거북은 한중 두 언어에서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으로 쓰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구태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鯢背(태배)’는 복어 등의 무늬로서 장수 노인을 비유하는 말이다. “爾

雅. 釋話”에는 “鮐背, 耄老. 壽也”란 기록이 있다.

龐眉(방미)는 ‘흰 눈썹’을 가리키는 말인데 ‘태배’ 등과 함께 쓰이면서 ‘장수’를 뜻한다. “若夫鶴算龜齡, 龐眉鮐背”가 그 일례로 된다.

彭祖(팽조)는 전설 속의 인물인데 그 나이 800에 달했다 한다.

松喬(송교)는 전설 속의 신선 赤松子와 王子喬를 함께 칭하는 말인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수했기에 위에서 든 팽조와 함께 ‘장수’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다.

한국어에도 ‘장수’의 국속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상당히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 한국어에는 십장생(十長生)이란 말이 있는데 ‘해, 산, 물, 돌, 구름, 불로초, 거북, 학, 시슴, 소나무’가 바로 이 십장생에 속한다. 한국 문화에서 ‘장수’의 국속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로는 이외에도 ‘띠, 토끼, 복숭아, 국화, 구슬, 금, 누에, 뱀’ 등 허다한 단어들이 있다.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속의미는 횡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어떤 언어에서든 물론하고 상당히 풍부한 동의어 계열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은 개념의미의 측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속의미론 연구에서 횡적분석을 통하여 이런 동의어군을 잘 발굴해 내는 것은 번역능력의 신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된다.

##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 역사와 더불어 한국어교육의 현 주소를 알아보면서 한국어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새롭게 떠오른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세계적 범위에서 외국어 교육은 교류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에까지 발전되고 있지만 우리의 한국어교육은 아직까지 교제능력(또는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둘째, 다문화 간의 교류 능력은 사회문화 능력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국어교육이 교류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문화 능력의 신장에 대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사회문화 능력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문화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해당 민족의 언어구조에 담겨진 문화적 요소, 즉 언어의 의미구조의 한 구성 요소로 되는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속의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이해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종적분석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번역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종적분석 방법과 횡적분석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속의미론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학계에서 거의 도외시되어 온 언어학의 한 연구 분야로서 수많은 과제들이 보다 많은 학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

\* 본 논문은 2007. 11. 12. 투고되어, 2007. 11. 15.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1995), 『한국민속대관』, 고려대학교출판사.  
이성범(2002), 『화용론연구』, 태학사.  
전정례(1999), 『언어와 문화』, 박이정.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辭海편집위원회(1999), 『辭海』, 상해사서출판사.  
辭源편집위원회(1980), 『辭源』, 상무인서관.  
漢語人詞典편집위원회(2000), 『漢語人詞典』, 한어대사전출판사.  
羅常培(1989), 『語言與文化』, 어문출판사.  
紐馬克(Peter Newmark)(2006), 『論翻譯』, 외국어 교육과 연구 출판사.  
王德春(1990), 『漢語國俗詞典』, 河海출판사.  
吳國華(2000), 『文化語義學』, 軍事誼文출판사.  
吳友富(1998), 『國俗語義研究』, 상해외국어교육출판사.  
刑福義(1990), 『文化語言學』, 호남교육출판사.  
趙愛國, 姜雅明(2003), 『應用語言文化學概論』, 상해외국어교육출판사.  
中華成語熟語辭海편집위원회(1995), 『中華成語熟語辭海』, 학원출판사.

■ 국문초록

국속의미론 연구와 한국어교육

강은국

국속의미란 한 언어의 개념 의미에 추가된 역사 문화, 풍속 습관, 지리 환경 등 문화 색채의 의미를 가리킨다. 국속의미는 의미의 민족성의 표현으로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집단의 역사 문화, 풍속,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민족문화의 특색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한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떠나서는 그 언어의 참된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리하여 국속의미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 이론의 발전에는 물론 외국어 교육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어교육에서 국속의미론 연구의 성과를 도입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민족 문화 차이로 인한 교제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교류능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국속의미 연구는 부동한 측면에서 다각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국속의미에 대한 종적분석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신장함에서 중요한 이론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지며, 횡적 분석은 번역(통역)능력을 신장함에서 중요한 이론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국속 의미론 연구, 한국어교육, 이해 능력, 종적 분석, 번역 능력, 횡적 분석

■ 중문초록

国俗语义研究与韩国语教育

姜銀國

国俗语义是指在词汇的概念意义上添加历史文化、民情风俗、地理环境等文化色彩的语义。国俗语义是语义民族性的一种表现,它客观地反应了使用该语言国家的历史文化和民情风俗。也就是说,语义在反映概念的基础上添加了附加的民族文化色彩,离开民族文化背景,难以理解语言单位的含义。因此国俗语义的研究,不仅有助于语言学理论的发展,而且对于外语教学都大有裨益。在韩国语教学中引入国俗语义研究的成果,可增加学习者对异民族文化差异的敏感性,克服跨文化语言交际中可能出现的障碍,避免跨文化交际中对某些语言误解或语用失误,提高交往能力。国俗语义可从不同的角度加以分析研究,纵向分析对提高听、说、读、写能力有着重要的理论意义和实践意义,横向分析对提高翻译能力有着重要的理论意义和实践意义。

[关键词] 国俗语义研究, 韩国语教育, 理解能力, 纵向分析, 翻译能力, 横向分析